

송년지상법석

엄매이지 않아야 자유인

청빈이라든가, 거룩한 가난이라는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또 귀 기울여 들어서는 이도 별로 없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맑은 가난, 청빈의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맑은 가난, 거룩한 가난이란 자기 자신을 텅 비우는 일입니다. 온갖 집착으로부터 훌훌 벗어나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성서에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가난입니다.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면 아주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맑은 바람이 우리의 심신을 깨끗하게 정화해 주며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는 미덕으로서의 가난한 삶, 청빈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에게 복이 찾아감은 당연지사입니다. 많은 것을 차지하기에 급급한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텅빈 흥남감이 청빈한 삶에는 깃들여 있습니다.

이런 생각, 생활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가치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는 물질에 의해 판단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주방은 주부들의 수련장입니다. 사랑이

는 안됩니다. 저들은 내게 인육 정진을 가르치려운 볼 보살님입니다. 설령 내 잘못이 아니라 해도 누군가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은 몇 생을 두고 더 갈등하는 인연을 짓게 만드는 과보가 될 뿐입니다. 사법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를 볼 보살님이라 여기고 공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인육 정진의 첫걸음입니다.

요즘 어머니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만 있을 뿐 자꾸만 사라져가는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핵가족화 현상으로 몇 안되는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흔치 않은 요즘 세상에는 가족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바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이룰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일은 물론 어머니 혼자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은 어머니로부터 노력을 기울여 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하루에 단 한 시간만이라도 아닌 단 30분이라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

람이라는 겁니다. 일이 없다는 것은 일거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 일에 엄매이지 않는 것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귀인이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일이 많다고 합들어 하는 것은 이미 그 일에 엄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단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떻게 정성 들여 할 것인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을 하거나 일도 많고, 힘이 들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가에 따라 업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통째로 여러분에게 제가 속재를 한 가지 내드리겠습니다. 이 속재는 권유사항이니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는 일주일에 하루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날로 정해 지키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렵다면 우선 나 혼자만이라도 실행에 옮겨 보십시오. 둘째는 하루에 단 한시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지식을 키우

어는 아사를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가까이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식량이 부족해서, 요즘 들어서는 흉수로 굶주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을 지녀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소리로 낮추시라는 겁니다. 외국을 나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건 없건, 장소가 어디든 가리지 않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 사실 부끄럽습니다. 말을 하는 데에도 예절이 있는 법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 사람들에게 행여라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조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네 인생살이에서는 지금까지 지나왔던 것을 돌아볼 때가 옵니다. 생을 마치는 그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생에 대한 애착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해도 이때만큼은 살아있는 동안의 그 슬픈 애착은 물론 육신까지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내 생명을 임태시켜준 어머니의 몸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



엔트로피란 물리학의 열역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지금은 물리학 이외의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엔트로피란 대개 무언가를 어떻게 진화나 생명과 연관되는지를 살펴보는 학제이다. 어떤 계의 엔트로피는 그 계에 유입된 열량을 온도로 나눈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 사람들은 이 엔트로피라는 양이 보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엔트로피는 정보라는 개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정보 이론에 의하면 엔트로피란 부의 정보 혹은 마이너스 정보이다. 즉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을수록 엔트로피는 크게 되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엔트로피는 작아진다. 엔트로피는 부의 정보이므로 무지의 정도이기도 하며, 또한 혼란의 정도를 뜻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느 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면 그 계가 질서정연하지 않다

엔트로피가 아주 작은 계이다(이와는 달리 생명체가 죽고 나서 신체의 구성 요소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면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체의 진화라는 과정이 과연 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가능해진다. 생명체가 아주 엔트로피가 작은 계라면, 덩치가 큰 생물은 덩치가 작은 생물보다 엔트로피가 작은 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시 생명에서 고통 생명으로의 진화 과정은 대체적으로 생물의 몸집이 커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진화의 과정은 엔트로피가 축소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열역학 제2법칙과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만일 진화의 과정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이어서 불가능한 것이 라면, 어린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도 역시 같은 이유로 불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하나의 생명체

외부에너지 작용될때 생명체 진화 가능 일체사물은 끝없는 '연기의 그물'로 연결

엔트로피는 커지게 된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칙의 내용은 닫힌 계의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엔트로피의 정보적인 측면과 연관시켜 간단히 예에 적용시켜 보자. 가령 마당에 낙엽이 흩어져 있는 경우와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낙엽의 위치에 대한 정보량은 나뭇잎이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경우가 흩어져 있는 경우보다 크다. 이와는 반대로 엔트로피는 부의 정보이므로, 나뭇잎이 흩어져 있는 경우의 엔트로피는 나뭇잎이 모여 있는 경우보다 크다.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닫힌 계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따라서 외부에서 낙엽을 한 군데로 끌어 모으는 것과 같은 어떤 일을 해주지 않는 한 (이는 외부와 단절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물리학에서는 이러한 계를 닫힌 계라고 부른다), 엔트로피가 큰 상태에 해당되는 흩어져 있는 낙엽이 엔트로피가 작은 상태인 한 군데로 모이는 일이란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생명 현상과 연관시켜 보자. 생명체란 대단히 질서 정연한 조직이어서 고도의 정보를 지닌 계이며 따라서 엔트로피가 아주 작은 계이다(이와는 달리 생명체가 죽고 나서 신체의 구성 요소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면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에서 고통 생명으로의 진화 과정은 대체적으로 생물의 몸집이 커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진화의 과정은 엔트로피가 축소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열역학 제2법칙과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만일 진화의 과정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이어서 불가능한 것이 라면, 어린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도 역시 같은 이유로 불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하나의 생명체

분수넘치는 욕심 꼬달려 불평불만하는 삶 '불행' 한 생각 돌이키면 모든사람이 부처임을 알게돼

깃드는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절이나 교회, 성당만이 심신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 집안에 한식구로 만만 인 연은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자식이, 남편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럴 때면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허투루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허투루 하고, 만사가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자신의 삶을 보다 환호 고양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를 이렇듯 허투루하게 만드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살은 살아 계신, 그래서 생생한 법문을 펼쳐주고 계신 부처님임을 깨달는 것입니다. 부처란 개념을 고정 시키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불단 위에 노랗게 금을 들인 채 앉았던 계신 분으로,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몇 개 밝혀서 공양 올리면 그만인 그런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내 곁에,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한 생각 돌이킴으로 깨달아 보십시오. 저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를 미워 하고, 원망 해서

는 어머니라면 더욱 독서를 해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지식들과는 달리 어머니들은 항상 그 자리라던 아이들이 그런 어머니를 무시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공부란 학생 시절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과서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사 주간지가 아니라 좋은 책으로 독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자는 겁니다. 세계로는 보름에 한끼씩은 단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불과 한끼지만 스스로 마음을 내 단식을 하면서 이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만 지구 저편에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배를 주리고 있고, 심지어

는 어머니라면 더욱 독서를 해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지식들과는 달리 어머니들은 항상 그 자리라던 아이들이 그런 어머니를 무시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공부란 학생 시절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과서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사 주간지가 아니라 좋은 책으로 독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자는 겁니다. 세계로는 보름에 한끼씩은 단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불과 한끼지만 스스로 마음을 내 단식을 하면서 이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만 지구 저편에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배를 주리고 있고, 심지어

는 태어날 때 이미 내 생명을 임태시켜준 어머니의 몸을 버렸습다. 또 살면서도 끊임없이 버리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당해서는 이 몸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버린다는 행위는 새것을 얻기 위한 몸짓이라는 사실, 보다 본질적인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설령 내 잘못이 아니라 해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몇 생을 두고 갈등하는 인연을 짓는 과보가 됩니다”

Advertisement for 'Prayer' (祈禱) by Il-ta-kun-sung. It features a portrait of the author and lists various books for sale, including 'Prayer for All'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Prayer for the Poor' (빈자들의 입문서), and 'Prayer for the Rich' (부자들의 입문서). The ad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books with their prices.